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이 확산되면서 바야흐로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개시 5년 남짓한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트위터는 이미 100억 트윗을 훌쩍 넘겼다. 소위 '퍼블리즌'(Publicity + Citizen)은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개방된 플랫폼(블로그, 유튜브)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생활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공격적이고, 일방적이며 일회적 소통을 특징으로 한다면, 소셜 미디어의 세계는 쌍방향의 소통에 피라미드식 전달체계를 특징으로 하여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회 혹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위력은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젊은층들이 '투표 인증샷'이라는 형태로 활용하면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웬만한 대기업은 마케팅과 홍보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순식간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대략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사회화로의 이행이다.



불자 세상보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소셜 미디어가 각광 받는 이유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세대간의 격차는 꽤 있었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연령대는 전 세대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웹상에서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보다 훨씬 긴밀한 '개인의 대면'을 제공한다. 랜덤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면 곧바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가족, 공동체나 사회의 연대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나아가서 한 개인의 개성마저 상실되는 현재 사회의 압박에 직면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회색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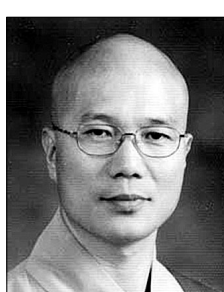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 소셜 미디어는 단순히 사용자들끼리의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사용자는 사적 공간에서 매우 구체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만난다. 따라서 내가 생산한 콘텐츠는 나를 선택한 혹은 내가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며, 이들만이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어떤 점에서 이는 인터넷 게시판보다 더 폐쇄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공간 속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회피한 '나'가 아니라 비록 미약

하다는, 제 스스로를 키우려 하는 본능적 욕구가 고통의 원인(五陰盛苦)이라고 설교했다. 이 가르침을 뒤집어 보면, 본디 없는 것이 속성인 스스로(我)를 즐기는 것이 행복의 동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스스로를 즐긴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제 아닌 것 즉 남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행복의 증진정도가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생물학적으로는 잠종교배가 우세하다는 뜻이 되고, 근대의 종교철학 사조로는 다원주의(pluralism)가 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리적으로는 으뜸(元)은 하나(一)일 수밖에 없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관찰되거나 입증되지 않아서 둘(二元)이라 하거나 그렇지 않다(不二)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원(無元)이라 해야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름을 받아들여 조화를 이룰 때 세계의 여러 존재들은 비로소 평화를 이룬다. 행복도 그러한 평화 가운데에 있다. 조화, 평화, 행복이 교류(交流)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한국불교의 해외교류는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이 교류였기에 교학(敎學)이든 선행(禪行)이든 유학(留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가 그랬다. 최근에는, 크게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를 통한 단체인 교류와 합



사부대중 칼럼

법현 스님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가까워진 이웃과 교류방법은?

깨 일본, 스리랑카, 티베트, 몽골, 미얀마, 대만 등의 개인과 사할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교대표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국제불교 우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수행교환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계종, 태고종, 선종, 진각종 등의 종단과 대한불교진흥원 등이 나서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봉사 및 교육, 직업지원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네팔, 인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불교도우의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했고, 이웃나라를 방문한 우리 불교계 대표가 어

울리지 않는 언행을 하여 해당 불교계의 빈축을 샀던 적도 있다. 실제로는 그 나라 불교의 수행과 신행방법을 익히려 갔음에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함기시 프로그램 진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가면서 기념사진 몇 장 찍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나 견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선당(禪堂)의 좌선대가 아닌 불당(佛堂)의 예배석에 앉아 좌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민망하다.

또, 한국불교 대표기구인 종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법론과 상대를 결맞게 정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교류하는 나라의 법령조차 이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낭비하는 사례도 꽤 있었다. WFB에 여러 종단, 여러 단계가 그 나름

한 존재지만 세상에 공적인 내 의견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투표 인증샷'의 사례처럼 여기서 참여민주주의의 계기가 주어진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소통기술의 변화는 확실히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개인간의 소통공간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강요된 사회적 연대를 붕괴시키고, 개인의 개성을 파괴하였다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공간 속의 개인들은 개별라전에 의해 조금씩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물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아직까지 트위터 공간은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안된 소비문화에 의해 더 많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개인 블로그보다 한 단계 더 간소화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140자라는 글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사유의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단문형의 차가운 메시지만 전달된다. 결국 소셜 미디어라는 소통기제는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단순한 소비문화의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로 참여 하다 보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에서는 참여를 유보하고 있고, 종단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참여하지 말자는 결의가 추진되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아가 이웃나라 불교계가 꽤 많이 참가하고 이웃 종교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세계종교의회(The Parliament of World's Religions)에 관한 관심이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 세계종교의회는 100여 나라의 수백 개 종교단체에서 5천 명이 넘는 종교지도자 및 종교인이 참여하여 한겨울, 평상, 양성 평등, 빈곤 등의 문제를 종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종교간 교류 및 이해와 나눔을 위해 활동하는 장이다.

이제 수행이나 교학, 문화 활동 등 배워야 할 것, 나눠야 할 것을 공유하는 바람직한 교류를 통해 더욱 굳건하게 세계인류를 부처님의 바른 법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터전을 넓게 하는 일을 손잡고 추진해야 한다.

종단마다 교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불교 단체인 종단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역할을 나누어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상호이해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간 대화를 하기 전에 종교내의 대화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한 선학의 지적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내외 종단간의 이해와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사설

주지 인사고과제도 정착되려면

조계종이 주지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한다. 7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직할교구 내 4개 사찰의 주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재임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지 인사는 문종과 계파 안배가 원칙 아닌 원칙이었다. 문종과 종단에 영향력이 큰 스님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보다보니 중생구제의 최일선에서 노심조사해야 할 사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지인사고과제도는 그 동안의 여러 폐해를 씻어내고 사찰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제도이다. 일선 사찰에서도 대체로 이 제도를 환영한다. 결국 소셜 미디어라는 소통기제는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단순한 소비문화의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평가 항목은 총무원, 포교·복지, 재정, 불사 등 4개 분야에 20여 가지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의견이 덧붙여진다. 각 분야마다 가중치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평가 항목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평가 항목은 곧 사찰 운영의 지침 같은 성격을 지닌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선도하도록 이끄는 항목의 신설이 요청된다. 사찰이 지역사회와 접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하는가이다. 지금의 심의위원회는 직할교구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원·포교원의 소임자스님, 위촉된 2명 등 6명이다. 심의위원을 대폭 늘려서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외인사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해외거주 포교사들의 목소리

지난 7월 16~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국제포교사대회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포교사들의 애로와 제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티베트 출신으로 동국대 티벳대장경연구소장인 계세 탄진 남카 스님은 사레발표를 통해 "앞으로 한국불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모두 교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종훈 포교사는 "미주지역의 사찰은 90여 개인데 비해 교회는 4천여 개가 넘는다고 실상을 소개하고, "영상매체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활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

문했다. 더욱 시급한 것은 갈 곳 없는 교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마침 조계종이 해외교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미국을 방문해 현지 포교사들을 만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의 의견은 물론 미국 내 여러 종교인, 종교정책당국의 견해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오랜 과제다. 우리의 우월성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수승함을 통해 세계일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미 이런 큰 뜻을 지닌 선각들이 일찍이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분들의 노고가 더욱 피어 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출판팀 실시간 뉴스 토틀뉴스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쇼핑몰 연불살닷컴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판매된 「I·II·III·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래정(來情)·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병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濟)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만을 구입·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책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면 증보·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상·하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입니다!



구입·승인·교환 안내 :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법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